“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구조 요청도 꺼려 지네요”

해경 헬기 추락 사고…안타까운 가거도 주민들

다른 사람 위험하게 할 수 없잖아요…그저 죄스럽다
의료장비·시설만 충분했어도 이런 사고 없었을텐데…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신고도 눈치보며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다 추락한 헬기 사고 소식을 접한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열악한 의료 시설 및 교통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제 몸 아프다며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겠냐’는 미안함과 죄스러운 반응도 엿보였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가거도 보건소 공중보건의 정찬혁씨는 “가거도의 경우 사실상 기본 의약품과 청진기 등을 제외하면 육지 병원에 비해 검진 장비가 열악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추후 응급 구조를 요청할 경우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거도의 경우 하루 한 차례 쾌속선으로 왔다갔다해도 뭍까지 4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가거도 해역은 기상 상황이 쉽게 바뀌는 ‘먼 바다’에 해당돼 툭하면 배가 끊기기 일쑤다.

응급 환자라도 발생하면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고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아픈 것이 죄가 아닌데도 미안해하고 참는 주민들이 생겨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 섬지역 주민들도 갑작스런 응급환자 발생시 대부분 헬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거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유인도 296곳 중 27개 섬에 공중보건의 97명(의과 52명·치과 22명·한의과 23명)이 배치돼 도서지역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없이 간호사 홀로 환자들을 돌보는 보건 진료원이 운영되는 섬도 69곳이다.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전남도가 병원선을 이용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지만 1년에 5회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간 미흡한 게 아니다.

그나마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의료 장비·시설 등이 미흡하다보니 헬기 등을 타고 뭍으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진도군 관매도 주민 함한종(51)씨는 “지난해 관매도에 헬기장이 새로 설치됐지만 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거차분교 정병택(31) 교사는 “가거도 주민 뿐 아니라 전남지역 모든 섬 주민들은 실종된 해경직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거차분교도 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크게 다치거나 아플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목포=박기웅기자 pboxer@

마지막 인사하는 해경

지난 13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실종자 중 처음으로 발견된 정비사의 시신이 목포로 이송됐다. 14일 새벽 5시10분께 순직한 박근수(29) 경장의 주검을 운구하는 해경 경비정이 목포항 삼학도 부두에 도착한 가운데 동료들이 다함께 거수경례를 하며 박 경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자기 서치라이트 켜더니 바다로 가라앉아”

주민들이 본 사고 순간

“안개 그다지 짙지 않았는데…”
선박 38척·항공기 12대 동원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
복통 어린이 군함으로 목포 이송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가거도로 향하던 해경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서해해경 목포항공대 소속 B-511 헬기가 지난 13일 오후 8시27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6.4㎞ 해상에서 추락했다. 이 헬기에는 기장 최승호(52)경위, 부기장 백동흠(46) 경위 등 조종사 2명, 응급구조사 장용훈(29) 순경, 정비사 박근수(29) 경장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박 경장은 이날 밤 10시40분께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거도 주민 임쇠국(45)씨는 “밤에 헬기에서 반짝이는 빨간불을 보고 헬기가 오고 있구나 했는데, 방파제에서 500~1000m 떨어진 해상에서 돌연 아래쪽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켜더니 그대로 내려앉듯 가라앉았다”면서 “바로 배를 몰고 현장으로 갔지만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거도출장소 에서 30년 근무한 공무원 김혁재(40)씨는 “헬기가 너무 낮게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안개가 너무 짙지도 않았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았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오후 7시13분께 가거도 보건지소로부터 임모(7)군이 맹장염 추정 증세로 심한 복통을 겪고 있다는 이송 요청을 받고 향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최 기장과 백 부기장 등은 헬기 조종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들로, 최 기장의 경우 지난 2월, 백 부기장은 지난해 7월 목포항공대로 옮겨 근무해왔으며 가거도 비행은 이날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앞서 오후 7시 119에 이송 요청을 했으나 시정이 9.3㎞에 불과해 헬기 이륙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해경에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해군 등은 선박 38척, 항공기 12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헬기 꼬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기체 파편과 구명벌 등 부유물 45점을 발견하는 등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해군은 수중 음향탐지기를 투입시켜 헬기 본체를 찾고 있으며 청해진함도 동체가 발견되면 무인잠수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서해해경은 헬기가 목포를 이륙할 당시 기상 상태가 초속 10m의 북서풍 바람이 불고 구름 높이는 500m로 비행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가거도 인근 해역에는 국지적인 해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통을 호소했던 임군은 해군 3함대가 사고 당일 밤 11시20분께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목포=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부인과 어린 자녀들 남겨 놓고…
2년 연애 끝 올해 결혼 앞두고…

가슴아픈 사연들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써 멀리 떠내려간 것은 아닐까…”

목포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2층 소회의실에 마련된 가족대기실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최승호 경위, 백동흠 경위, 장용훈 순경의 가족들이 초조한 기다림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 가족 30명은 해경 측에서 1시간 마다 칠판에 써놓는 수색동원 세력 등 상황보고에 눈을 떼지 못하며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동해해경에서 서해해경 목포항공대로 발령받은 최승호 경위는 3교대의 고된 업무에도 묵묵히 기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동료·후배에게는 든든한 선배이자 가정에서는 부인과 1남 1녀의 기둥과 같은 가장이었다.

해군 3함대(영암군)에서 22년 근무하다 지난해 7월 해경으로 옮긴 백동흠 경위는 새 파트너 최 경위와 한 조를 이뤄 헬기를 조종해 왔다. 애처가로 소문난 백 경위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었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정비사 박근수 경장의 가족들도 병원에 더 있지 못하고 상황본부를 찾았다. 나머지 대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분향소를 세울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경장의 고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뒤에 의젓하게 홀어머니를 모셨던 조카”라며 “실종자를 다 찾을 때까지 수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년여의 연예 끝에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박 경장의 여자친구 역시 자리를 지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응급구조사 장용훈 순경의 아내와 아버지는 사고 다음날 새벽에 해경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나가 애타게 장 순경을 기다렸다. 장 순경의 14개월 된 아들은 장인·장모가 남아서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사위는 응급구조사, 딸은 간호사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해왔다”며 “사고 해역에 나간 딸과 사돈이 건강을 잃지는 않을 지 걱정”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 순경의 동료는 “누나만 5명이어서 그런지 유독 정이 많았던 대원이었다”며 최근에는 “항암치료를 받는 부친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목포=백희준기자 bhj@

기내 흡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쌍나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에게 벌금형이 선고.

○…인천지법 약식 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은 초범, 범행 뒤 바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 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 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융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④ 전대상대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⑥ 쌍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융 6억)
추천물건 염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옆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④ 수완지구 모아엘가앞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융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 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①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정가 8천1백, 최저가 5천6백 (대촌산업단지 예정)
② 북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정가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투자적합)
③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정가 41억, 최저가 41억 (폐차장, 공업사, 특A급)
④ 북구 매곡동 (토 1,650㎡, 건물 1,317㎡) 감정가 15억9천, 최저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⑤ 동구 충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정가 5억6천, 최저가 5억6천 (문화의전당)
⑥ 상가건물 2층 ⇒ 담양권 금성면 (펜션, 식당 시설) 감정가 27억→12억
⑦ 상가건물 6층 ⇒ 광양시 중동 (중심가도로점) 감정가 26억→26억
⑧ 상가건물 4층 ⇒ 여수시 교동 (시내중심지역) 감정가 13억→10억
⑨ 상가건물 3층 ⇒ 충주시 성서동 (시내중심지역) 감정가 30억→12억

근린 상가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정가 17억, 최저가 12억
② 순천시 장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정가 3억8천, 최저가 3억8천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정가 6억5천, 최저가 3억6천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정가 9억4천, 최저가 2억1천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정가 4억9천, 최저가 3억4천

주유소

① 서구 마륵동 (토 1,132㎡, 건물 278㎡) 감정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7백
② 남구 압촌동 감정가 7억, 최저가 4억9천
③ 광산구 복룡동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8억8천

토 지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정가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① 오전반 (목요일) 9시30분 ~ 11시
② 오후반 (목요일) 7시 ~ 8시30분
③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①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② 집중 엔피엘교육 (기본부터 실전까지)
③ 서울 유명 교수님 초빙

010-6832-9700
010-2699-5300